

54. 자동차 도장교사에서 발생한 췌그렌증후군,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성별	남성	나이	만 52세	직종	자동차 도장교사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1996년 3월부터 □사업장에서 약 24년간 자동차 도장교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5월에 췌그렌증후군과 췌그렌증후군 관련 간질성 폐렴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업무 중 페인트와 신너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2021년 6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0월 1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정해진 주간교육 일정표에 따라 직업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양성과정, 자동차 도장 양성과정 등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전문교사로 근무하였다. 이외에도 근로자는 부수적으로 교사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 정비 양성과정 등 다른 과정의 교사로도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증언과 사업장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1개 반의 주당 32-40시간의 수업을 거의 혼자 진행하였다. 2017년부터는 학생 수가 줄어서 주당 1-2일간 약 16시간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 이후로는 현재까지 근로자가 수행했던 교육과정은 없다고 하였다. 각 교육과정은 사전에 6개월 단위로 수립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근로자는 매년 4.5-5개월 과정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진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1, 2월과 7, 8월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수업을 진행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20년 5월 2일에 숨쉬기 힘든 증상이 있어 A대학병원을 방문하였고, 항-Ro 항체 양성, 류마티스인자 양성, 형광항핵항체 양성, 타액선 스캔 양성, Schirmer test 양성, 폐 컴퓨터 단층촬영 상 간질성 폐질환 양상이 확인되어, 쉼그렌증후군과 쉼그렌증후군 관련 간질성 폐렴을 진단받았다. B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폐이식을 권유받아 2021년 6월부터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고 안구 건조와 관련된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2013년 10월 18일부터 건성안증후군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2018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간질성폐질환을 의심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3남 1녀 중 막내로 쉼그렌증후군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의 건강검진결과와 진술에 따르면 1991년에 금연하였고, 음주는 1~2회/주, 1병/회 하였다. 특수건강진단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EBV 검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고, 근로자는 EBV에 감염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67년생)은 만 52세가 되던 2020년 5월에 쉼그렌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1년 9월에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약 2년 1개월간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한 후, 1993년 10월부터 다른 자동차공장에서 약 2년 5개월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96년 3월부터 □사업장에서 상병발생 시까지 약 24년간 자동차 도장교사로 근무하였다. 근로자 상병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유기용제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자동차 도장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1996년 3월부터 약 24년간 환기장치가 부적절한 협소한 공간에서 도료와 신너를 구성하는 유기용제에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거에 사용한 신너와 페인트에 불순물로 벤젠이 함유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벤젠에 노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